

작은 것을 드리고 큰 것을 배운다

이지현/마들주민회 대표

상 계 어머니 학교. 지금의 마들주민회의 전신이다.

— 지금은 저소득 아동 방과 후 교실인 마들 창조학교와 마들 여성학교라는 두 부설기관을 둔 주민단체이지만 그 옛날 무학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문맹교육을 실시하던 상계어머니학교는, 20代부터 60代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제각각의 소설같은 사연들을 안고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며 시작된 곳이다.

더구나 눈뜬 장님으로 이 모진 세파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니, 그 살아온 사연들은 웬만한 소설의 흥미는 저리가라 할 정도다.

삶이 그러하네, 수업 중 한 두마디 내뱉은 푸념에 감정이 통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받기 시작하면 수업의 반은 살아온 낯두리에 인생공부가 되기 십상이었다.

6년 전의 일이다. 난 그즈음 첫아이를 임신하여 오전수업에서 야간수업으로 바꾼지 얼마되지 않을 때였다. 야간반 어머니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, 그 나머지는 대낮에 글배우러 나오는 게 창피한 젊은 어머니들 두 서너분이었다.

그날도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8시쯤 되어 한 분 두 분 모습을 나타내시며 고된 하루의 안부를 주고 받고 있었다.

사건의 주인공인 미모의 그 아주머니는 예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교실문을 들어가고 있었는데, 이게 웬 날벼락!

갑자기 카바레 심야 불법 영업 현장을 덮치듯 한 남자가 교실로 뛰어들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며 그 어머니를 죽일 듯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닌

가! 그 소리에 옆반에서 수업준비 중이시던 남자 선생님이 우리 교실로 뛰어 들어오셨고, 남자 선생님을 보자 더욱 더 흥분한 그 남자는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정체를 대라며 거세게 다그쳤다.

옆반, 우리반 할 것없이 어머니들이 총동원되어 오해를 풀려 한 마디씩 거들었고, 그 분은 우리 교재며 어머니들의 표정, 불룩한 나의 배 등을 두루두루 살핀 후 겨우 의심을 거두었다.

사연인 즉, 이 어머니가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 공부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숨겼던 모양인데 평소 아내 챙기기를 의처증이라 오해받을 정도로 심히 하시던 분이래 며칠 전부터 저녁시간에 전화도 받지 않아 행적이 영 수상하다 싶어 그 날은 드디어 뒤를 밟아 온 것이었다.

더구나 어릴 때 부터 한 마을에서 이쁜이로 소문난 그 어머니를 몹시도 짝사랑하다 반강제로 결혼에 성공, 결혼생활 내내 그 심한 단속에 그 어머니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. 어쨌든 그 날 수업은 하는 등 마는 등 그 어머니가 돌아간 후 또 다시 싱숭생숭 수다로 두 시간을 넘기고 겨우 끝이 났다.

그 후 집에서 어떤 살풀이가 있었는지 그리 썩 좋지 못하던 그 어머니택 부부사이가 수업 전 꼭 꼭 학교 앞까지 바래다 주는 사이로 까지 발전했다.

그 날의 그 사건은 사실, 전체 우리 어머니들의 심사로 치면 너무도 애교스러운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.

난 어머니들께 아주 작은 것을 드리고, 큰 것을 배운다. 인내를 배우고, 겸손을 배우고, 사랑을 배우고, 인생을 배운다. **이지현**